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67호 / 12월 05일

거시경제연구원, 내년도 경제성장률 7.5% 전망

1. 개요

- 중국 국가발전계획위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7.5%로 전망함. 또한 금년도 성장률은 7.6%로 예측함.
- 내년도 경제정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확대재정정책을 위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정책의 비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함.
- 세계경제 회복의 불투명, 고정자산투자 둔화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, 외국인투자자와 소비 측면에서의 호조로 성장률은 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.

2.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

-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국채발행, 외국인투자 증가, 소비증가 등에 힘입어 7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내년 3월 제10기 전인대 이후 신정부가 출범하면 경제개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.

- 최근 국무원은 심사비준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789개 항목에 대한 행정 심사비준을 취소했는데, 그 중 560개 항목이 경제관련 항목임.
-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되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비중을 높일 것임.
- ▲기초시설 및 서부지역 개발, ▲실업문제 해결, ▲사회안전망 건설 등 정부투자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,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이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적절한 통화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.
- 외국인투자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.
- 금년 1~9월 외국인투자 계약액 및 실행액은 각각 38%, 23% 증가하였음. 특히 실행액 기준으로 금년도 외국인투자는 사상 최대인 580억 달러 내외로 예상되고 있는바,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
- 소비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침체를 보일 것이나, 자동차, 여행, 주택, 컴퓨터 등은 뚜렷한 상승세가 전망됨.
- 그러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 증가의 어려움, 디플레이션 압력, 세계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- 정부주도 투자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바,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금년에 비해 다소 낮은 15% 정도로 예상됨.
- 디플레이션이 금년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겠지만, 물가상승률이 ‘플러스’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.
- 또한 소비증가율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.
-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증가율도 금년보다 약간 낮은 10% 정도로 예상됨.

4. 평가 및 시사점

□ 지난 10월 사회과학원은 내년도 성장률을 거시경제연구원보다 다소 높은 7.9%로 전망하였으나, 양 기관 모두 금년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(<표 1> 참조).

- 물가상승률과 수출증가율도 각각 0%와 10% 내외로 비슷하게 예측함.

□ 결국 내년도 경제성장의 관건은 도시지역에서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가와 통화정책의 효율성에 있을 것으로 보임.

- 특히 예금금리가 1~2%대로 매우 낮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‘돈’을 풀어서 소비를 늘릴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.

<표 1> 거시경제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의 경제전망치 비교

		거시경제연구원		사회과학원	
		2002	2003	2002	2003
GDP		7.6%	7.5%	7.8%	7.9%
공업생산액		12.5%	11.0%	-	-
물가수준		-	0.0%	-0.7%	0.0%
소비	명목소비	6.5%	-	8.6%	10.3%
	실질소비	9.5%	-	10.7%	11.4%
재정	재정수입	14%	9%	13.6%	15.1%
	재정지출	15%	11%	14.7%	14.2%
	재정적자	3,000억 元	3,500억 元	3,020억 元	3,270억 元
대외무역	수입증가율	-	-	14.6%	13.1%
	수출증가율	15.0%	10%	15.0%	11.7%

(***)